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21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1월 14일

김장겸 해임 우리가 승리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지 72일.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굳은 결의와 인내로 만들어낸,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써내려간 승리의 역사다. 지난 9년 암흑의 시간을 뒤로 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길이 드디어 우리 앞에 열린 것이다.

MBC 정상화 길 열렸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고영주·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참했고, 구여권측 이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김광동 이사가 해임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표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다.

이사회 시작 두 시간만인 오후 3시 58분, 마침내 표결 결과가 발표됐다. 참석자 6명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 추운 날씨 속에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 앞 로지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던 조합원 사이에선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서로 열싸안으며 벅찬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사회 이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김장겸의 MBC 사장 지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됐다. 그동안 온갖 고통과 치욕을 참아온 조합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김재철-안광환-김장겸으로 이어졌던 MBC 몰락의 역사가 종식된 순간이었다.

뻔뻔한 김장겸...철저한 법의 심판 받아야

김장겸은 쫓겨나는 순간까지 뻔뻔하고 비겁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직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거수기로 전락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취임 8개월 된 MBC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김장겸은 MBC 파괴의 상징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민·형사를 막론한 철저한 법의 심판뿐이다.

파업지침

2017. 11. 14.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을 2017년 11월 15일 09시부터 잠정 중단한다. 단, 대전지부는 총파업을 유지한다.
- 쟁의행위는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지속하고, 지명 파업·태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연국



김장겸 해임은 MBC 정상화의 서막

2010년 4월 조합은 김재철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 그 권력과 내통해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경영진과의 길고 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지옥같은 7년 7개월이 지나갔다. 지난 2일 고영주가 방문진 이사장에서 불신임되고, 어제 김장겸까지 해임되면서 이제 기나긴 투쟁은 승리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장겸은 공영방송 MBC를 철저히 파괴한 주범 가운데 주범이다. 국정원의 흉악한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김장겸은 보도 부문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김장겸이 가는 곳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가 자행됐다. 사익을 위해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도 술하게 훼손했다.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전보를 공모한 노동 탄압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장겸의 해임은 지난 9년 MBC를 장악한 김재철-안광환-김장겸 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무도한 경영진을 비호하고 공영방송 MBC를 극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방문진의 적폐 구도 또한 고영주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해소됐다. 이제 공영방송

MBC가 정상 궤도를 찾을 수 있는 서막이 열린 셈이다.

MBC 정상화까지는 수많은 과제 산적

그러나 축배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9년간의 상처는 깊다 못해 절망적이다. 김장겸이 해임됐다고 떠난 시청자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MBC 재건이라는 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다. 쉽지 않은 일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김장겸 한 명 나갔을 뿐이다. MBC를 송두리째 정권에 갖다 바치는 데 앞장섰던 백종문 부사장 이하 수많은 부역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충성의 대가로 지역사 사장 자리를 꿰찬 이들도 그대로다. 부역자들과 정권의 검은 거래도 날날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 수사를 통해 적지 않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해고와 징계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 등 해직자들

이 명예롭게 MBC로 복귀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의 투쟁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일베’ 방송으로 전락한 그간의 보도 참사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 차별화된 뉴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MBC 재건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

쉽지 않은 재건투쟁을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유능하고 독립적인 경영진의 임명이다. 정치권이 MBC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또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방문진법’을 바꿔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두가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투쟁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촛불’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MBC 재건이라는 진정한 승리를 반드시 거머쥔 것이다.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김장겸씨, 이제는 법의 심판대로

김장겸 ‘전’사장, 지금은 잠시 자연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그 처지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김장겸은 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형사 사건 ‘피의자’로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악의적이고도 광범위했던 부당노동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또 서울 중앙지검이 수사중인 국정원 MBC 장악 사건에서도 언젠가는 도마에 오를 인물이다. MBC뉴스가 국정원에 의해 파괴될 때 김장겸은 보도책임자였고, 전 사장들도 눈치를 보는 실세였다.

백종문 ‘근거 없이 해고’ 녹취록 수사 재개

아직 쫓겨나지 않은 김장겸 '일당들에게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남아 있다. MBC 부당노동행위를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조합원들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김장겸은 물론 백종문 최기화 등 현 경영진들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당분간이나마 사장 대행 행세를 할 백종문에 대해선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과 안광환 등 전직 사장들까지 포함해, 이들 전현직 경영진들은 단순 실정법 위반 사범들이 아니다. 언론 자유를 철저히 파괴해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반헌법 범죄자이자, 결국 국정원의 기획대로 움직인 국기문란 사범들이다. 그에 걸맞은 합당한 심판이 필요하다.

지역 ‘낙하산’은 모두 퇴진 대상

이들이 지역사에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들은 퇴진 투쟁에 직면해 있다. 천박한 ‘메롱’ 사건의 주인공 송재우(춘천), 중동뉴스 이진숙(대전), 5.18과 광주 정신을 폄훼한 ‘모태 일베’ 심원택(여수), ‘고영주 골프집대’ 당사자 허연희

(부산) 등 17개 지역사 낙하산 사장들은 모두 과거 부역체제의 산물이다. 최근 심원택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그들이 지역사에 남아 있는 하루하루가 MBC정상화의 걸림돌이자 수적이다. 총파업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서울과 지역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서라도 전국 곳곳에 뿌리를 튼 낙하산 적폐들도 모두 물러나야 한다.

부역자들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김장겸은 ‘해임’되면서 3억5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사실상 날렸다. 하지만 ‘정산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MBC본부는 김장겸과 그 일당이 저지른 술한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전보,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조합원 탄압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노조 파괴를 위해 남발했던 각종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1원까지 계산해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이 MBC를 망가트린 대가로 취한 사적인 이득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필귀정의 예로 삼을 것이다.

신뢰 회복 절실한 MBC, 새 사장 선임 절차부터 투명해야

김장겸의 법적 지위 박탈 절차가 끝났다. 이제 MBC의 미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차기 사장 선임이다. 법적으로는 김장겸 잔여 임기를 채울 보임 사장 선임이지만, 이번 사장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9년 권력의 방송 장악과 이에 협력한 부역자들로 바닥까지 추락한 MBC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시청자들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당장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절차가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70일 넘게 이어진 이번 총파업, 아니 지난 7년 간 계속된 끈질긴 저항을 통해, MBC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시청자에게만 복무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함을 천명해왔다. 현행 방송관계법은 MBC의 정치적 독립을 영구히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MBC의 정상화는 현재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최선의 사장을 뽑는 지혜와 원칙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MBC 사장 선임 권한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있다.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방송문화진흥회를 극도로 치우친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나, 오직 권력에만 아부하는 어용 학자들로 채워 넣었다. 촛불 시민이 열어준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고영주를 비롯한 이같은 적폐 이사들 일부를 몰아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MBC를 국민의 것으로 거듭나게 할 제대로 된 사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한다.

첫째, 정치권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전제이다.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MBC 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개입할 근거는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 과거의 관행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구시대의 관행에 기대어 정부나 여야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한다. 오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시민의 뜻을 존중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논의해 최선의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둘째, 시청자들에게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청와대도 국회도 아니다. 오로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뢰받는 사장을 뽑아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모 절차는 물론 사장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MBC 재건 공약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청자들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부여된 의무이다.

셋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MBC는 지난 9년 동안 처참하게 파괴됐다. 우리 MBC의 현업 종사자들은 10명 해고, 200명 정계와 유배라는 언론인 대학살의 시대를 건디며, 언젠가는 MBC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김장겸의 해임 이후 새 경영진 선임 절차가 늦어지고 백종문 등 현 적폐 경영진의 과도기 체제가 길어지면, MBC는 회생의 기회를 점점 잃게 된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MBC를 정상화해, 국민과 시청자들이 부여한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MBC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완전한 자유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폐허 위에서 건설해야 한다. MBC의 새 사장에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저널리즘의 의무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그리고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 추진은 현업 종사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신뢰의 시작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임 절차에서 시작된다.

총파업

72일간의 기록

침묵 깬 “김장겸은 물러나라”

“6월2일 김민식PD 상암동 사옥에서 침묵을 깨고 “김장겸은 물러나라” 외침.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전파된 이 외침은 3일 만에 조회수 2만 돌파. 제작거부와 총파업의 도화선 역할



들불처럼 번진 ‘제작 거부’

7월21일 제작 자율성 침해에 반대하는 <PD수첩> 제작진의 제작 거부는 8월3일 <시사매거진 2580> 등 시사제작국으로 확대. 이후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제작거부는 영상기자와 콘텐츠제작국, 보도국, 아나운서국, 라디오국으로 확산



MBC본부, 고영주 비리 연타석 폭로

고영주가 정체불명의 브로커와 입을 맞춰 여의도 사옥에 대한 매각을 강요한 사실과 박근혜 정권 실세 김기춘 등과 호화 골프접대를 받아 김영란 법을 위반한 의혹 등의 비리를 MBC본부가 10월 13일과 17일 잇따라 폭로하고 즉각적인 해임 사유에 추가.



새 방문진, 고영주 불신임안 가결

11월2일 새 방문진, 고영주 불신임안 가결. ‘대통령 명예훼손’부터 ‘공영방송 파괴 방조’, ‘김영란법 위반 골프 접대’, ‘경영평가 보고서 일방 폐기’ 등 해임 사유는 이미 차고 넘쳐.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 확산

‘메롱 기행’ 송재우를 비롯해 ‘중등 뉴스’ 이진숙, ‘타고난 일베’ 심원택, ‘시사고양 파괴’ 김현중, 김철진 등 김장겸 부역 체제의 산물인 지역사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퇴진 투쟁 확산.



김장겸 지시 ‘악마의 편집’ 폭로

‘세월호는 가리고, 촛불은 줄이고, 태극기는 키워라’ 김장겸이 지시한 영상편집 보도지침 폭로. 단원고 학생 휴대폰 영상도 ‘금지’, 백남기 농민 영상도 ‘금지’, 출처 불명 태극기 영상은 적극 활용.

‘승리하고 진실 밝혀라’

10월24일 세월호 가족 21명 파업 승리해 세월호 진실 밝혀냈는지 날날이 기록하고 성찰하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9월22일 공영방송 비상 사태를 방기한 방문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사감독 착수. 고영주 등 舊방문진 이사들은 검사감독 불인정하겠다는 자료 제출도 거부.



김장겸 등 경영진 ‘대면 투쟁’ 돌입

파업 3주차 투쟁 수위 격상. 9월18일부터 김장겸 백종문 최기화 등 경영진에 대한 출근길 대면 투쟁 전개. 면전에서 국경원 접촉 사실 확인하고 즉각 퇴진 요구. 경영진들의 반응은 침묵 아니면 동문서답.

‘유배지’ 폐쇄 선언

8월30일 구로, 여의도, 경인지사 등의 조합원 32명이 ‘유배지 폐쇄’를 선언하고 상암동으로 복귀해 제작거부 대오에 합류.



‘총파업 돌입’ ..MBC 재건 시동

역대 최고 투표율(95.7%)과 찬성률(93.2%)로 9월4일 MBC 본부 총파업 돌입. 편성PD 30여 명과 송출 담당 등 방송 필수 인력까지 동참한 역대 최대 규모·강도의 총파업 투쟁 결의.



김장겸 부당노동행위 체포영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9월5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출석해 12시간 밤샘 조사. 조사 결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김장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예정.



김장겸 해임... MBC재건 신호탄

총파업 71일차인 11월13일 방문진이 ‘적폐의 정점’ 김장겸에 대한 사장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고 직후 열린 주주총회가 해임을 확정하면서, 7년에 걸친 공정방송 투쟁 승리. 총파업은 잠정 중단됐지만 부역체제 청산을 위한 MBC 재건 투쟁은 계속.



‘원조 적폐’ 검찰 줄소환... 김재철 구속영장

10월10일 국정원과 내통한 혐의로 ‘적폐의 시작’인 전영배를 시작으로 윤길용, 이우용, 백종문 등 국정원 문건 작성 당시의 핵심 부역자들 잇따라 검찰 소환. 11월6일엔 이들의 수장격인 김재철이 소환됐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됨.



파업 ... 세월호 가족 방문

파업 지지 방문. “노란 리본 달고 달라” 당부. 보도참사 왜 막지 못했습니까.



유의선 김원배 사퇴... 적폐 카르텔 붕괴



총파업 돌입 초 9월11일 舊방문진 유의선 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10월19일 김원배 이사도 사퇴. 극우들의 놀이터였던 MBC 방문진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고영주와 김장겸을 보호하던 적폐 카르텔이 8년만에 붕괴. 이대 출신 언론인과 대전지부 조합원 등의 설득이 결실을 맺음.



“이런 뉴스 못하겠다”... AD·리포터 등 퇴사로 동참

라디오 작가 70여 명과 리포터 12명의 파업 지지에 이어 9월11일 뉴스데스크 편집부 AD 5명이 뉴스 제작을 거부하며 퇴사 단행. 이후 뉴스투데이 출연자 6명도 ‘녹화 뉴스’ 거부 동참.



국정원 ‘MBC 장악 문건’ 공개.. ‘실행’ 확인

9월14일 MB정권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공개. MBC본부는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MBC 파괴 공작이 실제 어떻게 추진됐는지 긴급 조사를 벌여 문건 그대로 실행된 사실 폭로.

투쟁은 계속 된다

‘김장겸 잔당’ 들은 당장 손을 떼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기 불과 두 시간 전, ‘전두환 찬양’으로 물의를 빚었던 여수 MBC의 적폐사장 심원택(사진)이 기습 인사를 단행했다. 종파업 중 인사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조합원들이 보직을 사퇴하며 자리가 빈 기술부장과 편성 제작부장 자리에, 파업을 전후해 조합을 탈퇴한 인사들을 앉힌 것이다. 회사가 혼란한 틈을 타,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는 ‘잔당’들이 막가파식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으로 옮긴 ‘더 강고한 투쟁’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72일을 이어 온 우리의 싸움은 이제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뚫을 뿐이다. 지난 9년간 폐허가 된 ‘공정방송’이라는 성체를 복원하는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게다가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비운 일터에는 아직 ‘김장겸의 잔당’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단지 자리를 옮겨 이어질 뿐이다. 조합은 MBC의 모든 정상화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쟁의행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투쟁의 수위는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MBC를 파괴한 현 경영진의 완전한 퇴출은 물론, 공정방송의 기틀이 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피케팅과 집회, 총회를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해직 조합원들도 상암사옥으로 출근해 이 투쟁의 대오에 합류할 것이다. 앞서 조합은 공정방송 탄압을 목적으로 한 유배 근무지를 모두 폐쇄한 바 있다. 자신의 일을 빼앗기고 부당 전보된 조합원들도 조합이 지정하는 곳으로 출근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공정방송 저해하는 경영행위 일체 불인정

그리고 선언한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임원들은 그저 껌대기일 뿐이다.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이상, 그동안 14층에 숨어 회사를 망치던 한 줌의 경영진들은 한시라도 빨리 회사를 떠나라. 또 현재 회사에 남은 보직 간부들에게도 경고한다. 우리 조합원들은 통상적인 필수 운영 업무를 제외하고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정상화의 첫 걸음을 뚫은 MBC에 더 이상 그들의 자리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프로그램의 편성,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등 통상업무를 제외한 인사발령과 평가도 인정할 수 없다. 내년 사업계획을 포함해 예산 편성과 창사기념 행사와 포상,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들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앞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인력 채용 등을 획책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 뒤야 할 것이다. 조합은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사행위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기록해 반드시 개개인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불공정 편파 방송 제작 지시 ‘거부’

미래의 MBC를 만드는 것은, 파업 과정에서 공정방송에 대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고민한 조합원 모두의 몫이다. 따라서 현재의 간부들

은 MBC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들에서 당연히 손을 떼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보직을 내려놓고 참가한 조합원들도 국장·부장 회의, 확대 간부회의 등 현 경영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일터로 자리를 옮긴 조합원들은 더 강고한 제작거부를 진행할 것이다. 현 경영진 및 간부들이 기획하고 지시하는 불공정 편파 방송의 제작 지시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여기에는 뉴스와 시사뿐만 아니라 불공정·왜곡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된다. 대신 조합원들은 이제 새로운 MBC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이다. 과거 방송장악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MBC 파괴 백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저널리즘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과 청사진 제안 등에 조직의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MBC에 남아 있는 방송 부역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 그리고 공정방송의 기틀이 단단하게 자리 잡을 때야말로 비로소 MBC가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전국 2천 조합원들은 피케팅과 집회, 총회 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

반성과 성찰 통해 ‘MBC 재건’ 청사진 그린다



마침내 적폐의 성체가 무너졌다. 이제는 빠르고 튼튼하게 MBC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먼저 지난 9년간 MBC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과 노동 탄압, 공영방송 파괴와 저널리즘의 말살을 되돌아봐야 한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 잣대미의 폐허 위에 MBC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치와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공영방송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MBC 방송장악 백서〉 집필 작업 한창

〈MBC 방송장악 백서〉(가제)는 지난 9년 집권 세력과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역사

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보고서이다. 방송 장악의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다. 총파업 돌입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각 부문별로 기초 자료 수집과 1차 원고 작성 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다.

MBC 파괴의 상징과도 같은 보도 부문은 30여명의 대규모 TF가 활동 중이다. 2012년 170일 파업 이후부터 이번 72일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의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주요 이슈는 물론, 경영진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뉴스를 사유화 한 적폐 경영진의 보도 농단도 되짚는다. 불공정, 왜곡, 편파보도가 양산된 과정과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해 보도부문 조합원 130여명의 대면 인터뷰와 서면진술이 수집됐다.

편성제작 부문의 이슈도 광범위하다. 국정원 장악 문건에도 명시된 〈PD수첩〉등 시사프로그램 퇴출과 시사교양국 해체, 라디오의 제작진과 출연자 배제, 무더기 퇴사와 부당전보로 망가진 아나운서국의 조직 파괴 등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정윤희 아들 특혜 출연으로 얼룩진 드라마, PD들이 줄줄이 회사를 등지며 회사를 떠난 예능 등의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과 제작 자율성 훼손 실태도 낱알이 기록될 예정이다.

경영 부문은 인사, 감사, 예산, 회계 등 주요 분야의 적폐를 조명한다. 부당징계와 전보가 난무했던 인사 전횡과 수시로 자행된 밀실·줄속 채용, 부역 경영진과 간부들의 방만한 예산 낭비 등이 집중 규명 대상이다. 기술과 영상·미술 부문 역시 노조 혐오 조장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밀실에서 진행된 날립 채용 등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복원의 밑그림 〈MBC 재건 리포트〉

〈방송장악 백서〉의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이른바 〈MBC 재건 리포트〉도 작성된다. 전 조합원의 제안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작성될 ‘MBC 재건’의 밑그림이다.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강령과 규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위법 경영 철폐 및 의사결정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지역사 사장 선임 제도 개선 등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 방안 ▲비정규직, 중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검토 착수등이 골자가 된다.

이를 위해 어떤 경영진이 들어서도 편성과 제작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편성규약 개정과 ‘공정방송’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할 전제조건인 MBC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투쟁에 나선다는 원칙도 포함된다. 또한 부역자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역MBC를 지역 시청자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역사 임원의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고, 서울과 지역사간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MBC 정상화, 이제 시작입니다

MBC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해주십시오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이것으로 MBC는 정상화의 첫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MBC 점령에 맞서 총파업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2010년 4월 이후 7년 7개월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불법으로 동원해 지난 9년 공영방송 MBC를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김장겸과 김재철을 비롯한 부역 언론인들은 정권의 방송장악에 협력해 MBC를 정권에 헌납했습니다. 우리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헌법 유린에 맞서 2010년 39일 파업,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싸웠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10명이 해고됐고, 200명이 징계를 받거나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이 일을 빼앗겼습니다.

그 사이 MBC는 사회의 흉기로 전락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파괴에 맞서 촛불을 들어주셨고, 덕분에 우리 방송 종사자들도 다시 힘을 내 싸울 수 있었습니다. 9월 4일 다시 시작해 72일을 이어온 역대 최고강도의 총파업에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MBC를 다시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장겸의 해임은 MBC 정상화 첫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산 MBC를 파괴한 범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장겸과 김재철 등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방송을 파괴하고 점령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종문을 비롯한 남은 경영진과 지역사 사장들도 끝까지 몰아내겠습니다. 철저한 청산과 처벌에 국민 여러분

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둘째, 지난 9년 방송 장악의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반성해 국민 여러분께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박근혜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한국 방송사상 최악의 보도 참사로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하고 낱알이 기록하겠습니다. 방송사 내부의 잘못된 침묵과 부역을 낱알이 기록해 프로그램으로 국민께 알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셋째, 다시는 정권이 방송을 함부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송 독립을 쟁취하겠습니다. 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현업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통해 완전한 제작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다시는 어용 학자나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MBC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감시하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망가진 지역MBC도 반드시 지역 시청자들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MBC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9년 간 소수 권력자들이 부역 언론인들과 손 잡고 공영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우리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MBC를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방송하겠습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국민께서 철저한 감시와 비판으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최고의 뉴스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